

뉴욕에 다시 드리운 '9·11 공포'

폭발·흉기 난동 3건 잇따라
당국, 테러 규정 수사 착수
대선 앞두고 추가 범죄 우려

테러 위협이 대통령선거를 50일 정도 앞둔 미국인들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 미국 각지에서 벌어진 테러공격들이 2001년의 9·11 테러를 비롯해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가 됐던 테러 사례들을 연상시킨 탓이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 경찰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저녁 뉴욕시 맨해튼 남서부 첼시 지역 도로변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진" 폭발사건이 발생해 최소 29명이 다쳤고 1명은 중태다.

9·11 테러 발생일로부터 불과 몇새 뒤 발생한 이 사건이 빚어낸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폭발사건 직후 사건 발생지에서 불과 나흘 만에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와 전선으로 연결된 압력배출이 발견되면서 크게 증폭됐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 때 압력배출이 테러 도구로 쓰이면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에는 뉴저지 주 오션 카운티의 자선 마라톤 행사장 부근에서 '파이프 폭탄'이 폭발했다.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파이프 폭탄 역시 테



미국 수사당국은 18일(현지시간) 뉴욕시 맨해튼 등에서 전날 발생한 3건의 폭발 및 흉기난동 사건을 모두 테러 행위로 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러범들이 흔히 쓰는 무기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등 사법기관들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날 미네소타 주 세인트클라우드에서는 교회가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8명이 부상했다. 이 사건의 동기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범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슬람교의 유일신

"알라"를 언급한 점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의 테러 공격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CBS 등 미국 언론들도 하루에 세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테러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특히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을 불과 9일 앞둔 시점에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벌

어졌으며, 최근 미국인들의 관심에서 다소 뒤쳐졌던 테러 불안감이 다시 선거 국면의 화제로 등장할 여건이 조성됐다고 풀이했다.

이들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미국의 최대 당면문제로 가장 많은 14%가 경제문제를 꼽았고, 테러 위협(5%)은 정부에 대한 불만(11%), 일자리 문제(11%) 등에 밀려 7위에 그쳤다. 그러나 갤럽의 지난날 여론조사에서 테러 위협(9%)은 경제(17%)와 정부에 대한 불만(13%)에 뒤이은 3위였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 사건들이 선거운동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클린턴은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기다려보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는 지금이 테러 위협의 시기라며 테러에 대해 "단호하고 현명하고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뉴욕 맨해튼 폭발사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이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예방 차원에서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48사치 일삼은 거부 석송

석송(石崇, 249-300)의 자는 계륵으로 산동성 청주 출신이다. 서진 시대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거부였다. 교역으로 축적한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위·진 시대를 풍미했으나 팔왕의 난의 와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서진의 무제때 성양태수를 지내고 안양후후에 봉해졌다. 해제 때는 중랑장, 형주자사의 지위에 올랐다. 형주자사 때 항해와 교역으로 큰 부를 축적했다. 일설에 의하면 형주자사 시절 부하를 시켜 길가는 상인과 외국사신의 재물을 갈취했다고 한다. 그가 역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것은 엄청난 부와 상상을 초월한 사치스런 삶 때문이다. 280년 무제가 오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자 황실과 귀족 가문에서는 사치와 향락의 경연이 벌어졌다. 태위 하중의 집에서 먹는 음식은

리, 닭, 돼지, 거위, 오리, 가오리, 물레방아, 물고기 잡는 연못, 동굴이 있다.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석송과 왕개의 사치 경쟁은 허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왕실과 관료들의 부패스런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왕개가 썩은 쌀 말린 것을 원료로 쓰면 석송은 양초를 사용했다. 석송이 산초나무로 벽을 칠하면 왕개는 적석지를 칠하여 경쟁했다. 무제의 사위 왕제는 사람의 젖을 먹여 돼지를 키웠다. 왕개는 석송을 자기 집에 초대해 무제가 하사한 산초수를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석송은 쇠막대기로 산초수를 냅다 후려했다. "이건 황제께서 내게 하사한 보물이다. 당장 내놓으라"는 왕개의 호통에 석송은 하인을 시켜 집에 보관해 놓은 산초수를 몇 아름이나 가져오게 했다. 왕개의 기가 꺾였음을 물론이다.

위·진 시대 풍미...팔왕의 난으로 나라에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것으로 음식 만드는 비용이 엄청났다고 한다. 지치통갑에는 "하루에 만전의 비용을 들여 음식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젓가락을 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하소는 아버지보다 더 사치스런 생활을 했는데 입은 옷들이 장롱에 가득차 썩어갔다. 종이 먹어 입을 수가 없어 버린 옷이 부지기수였다. 세설신어(世說新語)에는 당시의 사치스런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무제의 외숙 왕개, 석송, 무제의 사위 왕제 등이 벌인 사치 행각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노포의 전신론(錢神論)이 저술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돈이야말로 신이다"라는 극단적인 유희론적 사고다.

석송은 집 뒷간에 이쁜 시녀들을 쫓겨가서 해 향을 피우고 손님에게 새로 맞춘 옷을 입혀주었다. 뒷간 이용시 악취가 옷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새 옷을 입혀주었다. 손님이 집을 찾아오면 술대접을 하는데 손님이 시종드는 시녀가 따라주는 술을 먹지 않으면 시녀를 배어죽였다고 한다. 무제의 사위인 왕돈은 술잔이 돌아올 때마다 단호하게 마시는 것을 거부해 3명의 시녀가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동석한 승상 왕도가 꾸짖자, 왕돈이 "저 사람이 자기 집 사람 죽이겠다는데 그것이 승상과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독하고 황당한 일화가 아닐 수 없다.

300년 황후 가남풍을 제거하기 위해 조왕 사마유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석송은 황문량 반역, 회남왕 사마윤, 제왕 사마경 등과 힘을 합쳐 대항했으나 패했다. 그는 탄식하며 "놈들이 나의 재물을 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잡으러 온 자가 "재물이 화가 될 줄을 알았다면 어찌 일찍 재물을 나눠주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자 답할 수가 없었다. 마침 내 삼축이 해를 당하고 그의 자산은 관부에 몰수되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에 받았습니다.

북한 핵실험 전방위 대응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운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엇 이스트 사이드 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회담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3개국 외교장관이 한목소리로 강경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 장관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약 1년만이다.

운 장관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3개국 장관이 회담을 했다"면서 "10년만에 최초로 3개국 외교장관이 공동성명도 채택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2270호 결의안을 보완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승려 500명, 히말라야 자전거 횡단 티베트 불교 드루파 승려 500명이 네팔-인도 여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자전거로 히말라야 산맥을 횡단하고 있다. 승려단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인도 레(Leh)시까지 4000km에 달하는 횡단을 이번주 내에 마칠 예정이다. 지난날 30일(현지시간) 승려단이 인도 라다크 지역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손실보고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대출금만 안고,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